



CHRISTIAN DE PORTZAMPARC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수상경력

- 2022 프랑스 한림원 건축대상, 프랑스
- 2018 프리미엄 임페리알 일본예술가 대상, 일본
- 2006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예술분야 53번 회원, 프랑스
- 2005 국제부동산연맹 디자인 대상, 프랑스
- 2004 프랑스 도시계획 대상, 프랑스
- 1998 프랑스 건축대상, 프랑스
- 1998 미국건축가연맹 AIA 명예회원, 미국
- 1994 프리츠커상, 미국
- 1992 프랑스 한림원 메달, 프랑스
- 1990 파리 건축대상, 프랑스
- 1990 프랑스 일급 국가 수훈 훈장, 프랑스

*주요 수상경력만 기재

1944년 5월 9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출생한 저명한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은 50세 때 프랑스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상상력 넘치는 건축 스타일은 대담한 형태, 예술적 접근으로 유명하며 수채화 화가로서의 창의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콜 데 보자르)**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1966년 뉴욕으로 이주하여 현지 예술 커뮤니티와 교류한 후 1969년 파리 국립미술학교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1980년**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건축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은 도시 공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큰 중요성을 두는 건축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파리의 **des Hautes Formes(1979)** 아파트 단지와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Cité de la musique(1995)** 건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에는 후쿠오카의 레지던스 **Nexus II (1991)**, **룩셈부르크 필하모니(2005)** 그리고 **베를린 프랑스 대사관(2003)** 등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뉴욕에서는 57번가에 위치한 **LVMH 타워(1999)** 이후 2004년 뉴욕의 파크 애비뉴의 **Prism 타워**를 건설했으며, 이는 2015년 말에 개장되었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뉴욕의 One 57 타워**는 센트럴 파크와 도심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130개의 고급 아파트와 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Louvain-la-Neuve의 **Musée Hergé(2009)**, 리우데자네이루의 **Cidade das Artes(2013)**, 파리 **La Défense Arena(2017)**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는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대극장 Casart**은, 2021년에 완공되었으며, **중국의 쑤저우 문화 센터** 및 **상해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두 거대한 프로젝트는 202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성공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사용성과 편안함, 사용자에게 행복을 주고 시적 감정을 열어 주며, 기존 건축과의 연결성을 갖추는 것 입니다. 그는 건축과 도시 계획을 분리시키지 않았으며, 그는 “열린 블록” 이라고 부르는 설계 방법을 통해 파리의 마세나 지역에서 도시 구조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ELIZABETH DE PORTZAMPARC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

수상경력

- 2022 프랑스 국가 수훈 훈장, 프랑스
- 2022 올해의 건축가상, 브라질
- 2021 RIBA 국제 미래건축 디자인 대상, 영국
- 2016 미래 유산 대상, 크로아티아
- 2014 프랑스 상원의원 메달, 프랑스
- 2005 국제 부동산연맹 디자인 대상, 프랑스
- 2002 조명 디자인 대상, 영국
- 2002 컨트랙트 월드 어워드, 독일
- 1999 국제 실내 건축 디자인 대상, 브라질

*주요 수상경력만 기재

1947년 12월 28일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출생한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은 건축가이자 사회학자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프랑스 파리 외곽 도시 안토니의 **주민 참여형 도시 계획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이를 이끌며 건물과 도시의 다양한 사용, 그리고 장소의 정체성과 가능성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질이 다양한 도시의 공간들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주성’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와 분위기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사적이거나 공공적인 실천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개개인의 도시 공간에 대한 친밀도의 등급 개념을 만들어, 거리에서 도시까지 거의 모든 규모에서 이러한 개념을 전개합니다.

그녀의 작품과 이론 전체는 현재 **“연결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설명됩니다. 그녀의 작업에 기반을 둔 이러한 비전은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 **건축가는 프로젝트의 물리적-문화적 맥락의 모든 연결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만이 도시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녀의 작업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그녀는 2008년에 그녀의 사무소 내에 다학제적인 팀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아틀리에**를 설립했습니다. 이 팀에는 그녀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사회학자와 인류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Grand Paris 대 파리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다섯 개의 역 중 하나인 **부르제역**을 비롯하여, **콘도르세 캠퍼스의 대형 도서관**과 **타이완의 TIOC 타워**를 설계했습니다. 타이중의 상징이 되는 **Taichung 타워는 실질적인 수직 도시**로 고려된 4세대의 첫 번째 탑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개장할 **중국 푸둥 과학의 전당**은 상하이의 미래 ‘실리콘밸리’의 주요 시설로, 중국의 미래에 놓여질 주요 시설입니다. 그녀의 프랑스 님프의 **Musée de la Romanité 로마 시대 박물관**은 2018년에 ‘월드 퓨처 헤리티지’ 상을 받았으며, **1950년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로 AD 잡지에 선정**되었습니다.